

도시는 개인의 역사기록장이어야 한다

A city should reflect individual's historic record

글. 백가흠 Paik, Gahuim | 소설가

작년 여름 나는 그리스에 두 번째 여행을 다녀왔고, 관련된 책을 준비 중에 있다. 여행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의미를 달리 두겠지만, 작가의 경우 일의 연속 같은 느낌이어서 호기심은 많지 않았다. 기간이 좀 긴 여행과 짧은 여행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떠나곤 했다. 그리스는 5년 전에 두 달 반을 있었고, 작년에도 두 달을 넘게 있었으니 기간으로만 본다면 5개월 동안이나 한 나라에 있었던 조금은 긴 여행에 속했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는 고대도시국가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고대의 유물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풍경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유물은 건축물이거나 그에 딸린 장식품 같은 것이어서, 길을 걷다보면 수천 년 전, 해질녘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지금의 아테네는 수천 년 전 만들어진 도시이고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고대의 길가에서 집에서 살아왔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대로인 것이다.

한 중년 부부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은 원래는 부인의 외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부인 엄마의, 엄마의 집이라는 얘기였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이곳에서 살아왔냐고 물으니 알 수 없다고 말했고, 1층에 여전히 살고 있는 자기의 친정엄마를 데리고 왔다. 똑 같은 질문을 했고, 친정엄마는 자기 외할머니의 엄마도 이곳에서 살았던 것은 분명한데 그 이상은 모른다고 했다. 오랫동안 살아온 수백 년 된 집은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지만 잘 보존해 놓았고, 가끔 손님들을 위한 방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지금은 오래된 고택 옆에 현대식으로 3층 건물을 지어 1층은 친정엄마가, 2층과 3층은 결혼한 자매의 각 가족이 살고 있었다. 내심 각자 가족을 이루고 살면서도 한 집, 한 공간 안에 모여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형태가 조금 부러웠다. 앞마당 작은 정원에 펼쳐진 파라솔엔 언제나 이야기가 피어나고 평생을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처럼 살고 있는 그들의 여유가 좀 많이 생소하기까지 했다. 공간은 시간의 연속성 안에 있다. 역사라는 것은 시간을 한 공간 안에서 지켜온 일이다. 도시



아테네 디오니소스 극장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신전

전체가 그렇고 국가 전체가 그런 인식 안에 놓여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낡았고 오래됐고, 흥흥해 보이는 그 공간이 그들에겐 가능할 수 없는 지난 시간의 기억들이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앞으로 남지 않게 될 그 어떤 소중한 일지도 모르겠다.

그리스의 여행은 볼거리보다도 그 오랜 시간 지켜온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을 느끼는 일이었다. 우리가 서둘러 버리거나 바꾸어 버린 한 공간의 역사와는 비교되는 일이기도 했다.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 오랜 시간을 지키며 역사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이제는 부의 상징처럼 들어선 높은 빌딩으로 인식되는 것은 이 공간과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쓸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은 시간만을 아로 새길 수가 없다. 그 시간을 담은 공간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가 될 수 없고, 한 개인의 흐릿한 기억에 불과할 테니까. 사람들의 개인적 역사는 남은 공간과 건물이 그것을 대신한다. 거기에 기억이 있고 삶이 있다. 한 국가는 그 구성원의 개인적 역사로 역사를 만든다. 도시 공간이 편리함과 화려함과 부의 축적만을 위한 곳이라면 그 공간 안에 깃는 개인의 역사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도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나는 걸으면서 되뇌곤 했다. 도시는 공간이고 공간은 사람의 역사이자 숨이다. 태초에 고대도시가 신들을 위한 것이었고 인간은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면 지금, 현대 도시의 공간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문해야만 했다. 지금은 자본이라는 유일신이 거대한 도시를 거느리고 있다. 우리가 시골이나 자연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자유로움,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시간은 도시의 유일신 자본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숨 쉬는 도시라는 공간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 자본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신이 도시를 지배하는 바, 우리는 지금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도 모를 일이다. 역사를 지키는 것은 시간이 담긴 공간을 남기는 것뿐이다. 세계의 오래된 도시가 그것을 지금도 증명하고 있다.